

세계일보

The Segye Times

2008년 9월 10일(수요일)

WEDNESDAY, SEPTEMBER 10 2008

한국 고미술품 수집 관람행사

코리안아트 소사이어티 관장 메리 버크여사 자택 방문

메트미술관 특별전서 공개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관장, 로버트 툴리)는 이번달 12일(금) 한국고미술품 수집가 메리 버크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버크여사가 소장중인 귀한 한국고미술품들을 관람하는 행사를 가진다.

메리 버크 여사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 동양에서 오랜 세월 거주하는 가운데 희귀하고도 역사적으로 귀중한 동양의 고미술품들을 상당수 수집, 실제 미국내에서 최대 동양미술품 수집가로 인정받고 있다.

버크여사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미술품들은 2004년 메트미술관에서 특별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적이 있으며,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도 버크여사가 소장중인 한국미술품으로 특별전을 연바 있다.

로버트 툴리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관장이 이끄는 이번 한국미술품 관람행사는 메리 버크여사가 소장중인 한국고미술품이 보관 전시중인 자택을 직접 방문하는 행사인 만큼, 두번 다시 찾아오기 힘



한국 미술품수집가 메리 버트 여사의 자택 방문을 주선한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로버트 툴리관장.

든 귀한 기회로 평가되고있다.

이날 참여를 원하는 미술애호가들은 당일 오전 10시15분, 5애브뉴 78스트릿 선상에 있는 파인아트연구소 계단에서 로버트 툴리씨와 만난 후, 다 함께 버크여사의 자택을 방문하게 된다.

로버트 툴리씨가 안내역을 맡게

될 이번 관람행사는 참가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있으며, 참가신청은 로버트 툴리씨 (robert@koreanartsociety.org)를 통해 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nartsociety.org>
(황귀화 기자)